글쓰기에 대한 메타적 이해

소진형
서울대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연구원

학술적 글쓰기를 할 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학술적 글쓰기가 대상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인지 아니면 재현(representation)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학술적 글쓰기에는 어떤 의미로든 객관성이 요구되는데, 기술과 재현에 대한 고민은 글쓰기의 객관성이 어떻게 확보되는가에 대한 메타적 이해와 연동되어 있다.

글쓰기를 기술로 이해하는 것은 기술의 대상과 기술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즉, 기술된 바와 사실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과학적 글쓰기나 사회과학 글쓰기를 하는 학생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과학적 글쓰기와 사회과학적 글쓰기는 대체로 경험적 연구에 기초해 있으며 대상을 실험연구나 양적, 질적 방법론을 통해 이해하기 때문에 연구결과는 대상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과학적 글쓰기나 사회과학적 글쓰기를 할 때 학생들은 흔히자신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도출해 낸 결과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연구방법 자체의 문제이다. 연구 방법 설계에 내포되어 있는 오류가능성은 결과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연구 방법과 결과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한 글쓰기에는 해석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해석에는 필연적으로 글쓴이의 주관성을 포함된다. 연구과정과 결과는 기술일 수 있지만 해석은 양자가 완전히 일치하는 기술일 수 없다.

이렇게 대상에 대한 해석을 객관적 사실과 등치시키는 오류는 텍스트 분석을 위주로 하는 인문학적 글쓰기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예를 들어 역사적 글쓰기에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거나 텍스트 분석을 함에 있어서 콘텍스트를 통해 텍스트를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어떤 사실이나 연구대상의 주변인물들이 곧바로 연구대상의 삶이나 사상과 일치한다고 전제하기 쉽다.

이러한 전제는 왜 문제적인가? 역사상 존재했던 텍스트를 다루는 경우 글쓰기의 대상이 현재 부재하다는 점 때문에 글쓰기를 기술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역사적 글쓰기는 존재하지 않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존재를 글쓰기를 통해 대체하는 것이다. 부재한 대상의 진심이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역사적 글쓰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일 듯"한 것이거나 "에 대한 것" 정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부재한 대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역사적 글쓰기에는 단 하나의 설명만을 참으로 만들게 해주는 선험적 기준은 없다. 다른 한편 콘텍스트와 텍스트를 동일시하는 글쓰기들의 경우 역사적 맥락으로 환원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세종대왕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보자. 일반적으로 세종대왕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또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다. 세종대왕이 언제 즉위했다든지, 언제 어떤 개혁을 했다든지, 언제 죽었다든지, 언제 어떤 말을 했다든지, 어떤 책들을 편찬했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들에 기초해 그 사실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재구성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만약 역사를 "기술"이라고 이해한다면 역사는 영원히 접근할 수 없는 진리의 영역이 된다. 왜냐하면 의미의 재구성은 해석의 영역이고, 해석은 글쓴이의 주관성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객관적인 학술적 글쓰기란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글쓰기를 기술이 아닌 재현으로 이해할 경우 글쓰기의 객관성은 외적으로 담보될 수 있다. 글 쓰는 사람들은 대상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고민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대상을 둘러싼 자료들의 진위여부부터 시작해서 대상과 해석자의 극복 불가능한 간극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진실의 문제에만 집중하다보면 영원히 객관적인 글쓰기는 불가능해진다. "진짜 진실"을 자신이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현은 이러한 문제로부터 글쓰기를 해방시킨다. 왜냐하면 재현으로서의 글쓰기는 재현의 대상과 재현 사이에 결코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재현으로써 글쓰기는 대상을 재현하는 것이지만 그 재현이 곧바로 대상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그림을 생각해보자. 그림에는 추상화도 있고 구상화도 있으며, 대상의 특징을 잘 잡아낸 그림도 있고 묘사된 것은 대상과 관계없어 보이지만 대상의 핵심을 잡아낸 그림도 있다. 해석이란 대상에 대한 미학적 이해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글쓰기가, 혹은 사진이, 그림이, 음악이 대상을 대체할 수 없다는 해체적 사고는 근대학문의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포스트모더니즘으로부터 학문이 받은 수혜이며, 자의성과 객관성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구원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이 단 하나의 기술만을 참으로 인정한다면 재현은 "실재가 다른 층차의 무한성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재현은 대상의 어떤 본질적 특성을 포착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한 법칙, 표준, 기준, 일관성, 지속성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이 모든 것은 재현되는 대상의 세계에서 진실이 아니라 재현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일관된 현실이나 지속적인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재현하는 자나 독자들은 이 일관성과 지속성, 재현에서 주장하는 법칙이나 표준이 재현된 것이므로 현실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재현은 글쓰기에 대한 합리적 논쟁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독자들의 비판과 반론이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자료를 가장 많이 읽었다는 사실이 권위로서 작용할 수 없게 된다.

글쓰기가 재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림을 그릴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은 글쓰기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 간에는 정교함의 차이가 있듯이 글쓰기에도 정교함-개념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등-의 차이가 있다. 정교한 그림 중에도 본질을 포착하지 못한 것이 있고, 서툰 그림에도 본질을 정확하게 포착한 것이 있듯이 정교한 역사적 글쓰기에도 본질을 포착하지 못한 것이 있고, 서툰 글쓰기가 모두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글쓰기가 대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참이라면, 그리고 누구나 재현에 기초한 객관성은 어디에서 담보할 수 있는가? 다양한 설명이 복잡하게 얽힐수록 진실에는 더 가까이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다양한 설명들이 다원적인 경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설명은 타당성이 성립될 수 있는 기준-공동의 기준-을 완전하게 만드는 데 공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과학적 진실도 최종적으로는 논쟁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들이 어느 정도 통용되는 상황이지 않은가.

객관성은 글쓴이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평가하고 논평하는 학적 공동체가 제공한다. 대학과 아카데미는 오랜 시간 동안 방법론과 관점, 평가기준들을 발전시켜왔다. 이는 기술이 전제하는 것과 같은 절대적인 기준들이 아니고 반박과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지만, 또한 현재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객관적 기준이기도 하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글의 객관성을 담보받고 또 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는 수업과 글쓰기 교실과 같은 좋은 제도로부터 제공된다. 이러한 제도의 좋은 점은 자꾸 그림을 그릴수록 그림이 좋아지듯이 자꾸 글을 쓰고 수정해서 향상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이다.